



'70년~80년대 추억이 담긴 충장로를 걸어보세요'
충장년이 된 기성세대에겐 지난날의 향수와 그리움을, 젊은 세대들에겐 북적거리던 충장로의 옛 역사를 보여주는 '2007년 충장로 축제'가 9일 막을 올린다. 14일까지 충장로와 금남로 등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'7080 세대와 2030 세대의 회려한 만남'을 주제로 6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된다. '충장로 축제 100배 즐기는 법'을 소개한다.

◇축제 고수들이 모인다=전국의 길거리 축제 고수들이 매일 밤 거리 페스티벌을 벌인다. 참여팀은 ▲캐릭터 ▲7080밴드 ▲코스프레 ▲페션 퍼레이드 동아리그룹 ▲충장거리극 ▲풀불페스티벌 ▲보디페인팅 ▲중국 월수구 예술단 등 15개팀 400여명. 이들은 젊은 춤사위에 새로운 문화 트렌드인 '스트리트 퍼포먼스'를 선보인다.

개막식에 첫 선을 보일 충장로 퍼포먼스도 거리 축제의 하나. 폐선모델 15~20여명이나서 ▲미니스커트 ▲한복 ▲드레스 ▲헤어 스타일 등 '7080'을 주제로 쇼를 한다.

◇전국 놀이문화 한자리에=각 지역 대표 놀이꾼들이 충장로를 무대로 기량을 뽐낸다. 안동시 '하회별신굿탈놀이', 황해도 '평산소놀음굿' 등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27개 차지단체가 벌이는 거리페스티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.

서울시 은평구의 '럭셔리 주부댄스팀'의 재즈댄스와 경남 사천시 향촌동 '어촌 이미지 메이킹 풍물매', 경북 안동시 '전통 하회탈춤' 등이 볼 만하다.

◇흥겨운 춤사위와 먹거리에 몸을 맡겨라=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다. 일등 춤꾼을 뽑는 '비보이(B-boy) 전국경연대회'와 '마술 카테일 쇼'가 눈에 띈다.

또 ▲2030 페스티벌 ▲대형 도시락 먹기 ▲충장로 상품 경매 ▲그때 그 거의 먹거리 ▲추억의 사진찍기 등 체험행사도 다양하다.

지난해보다 젊은 세대를 위한 길거리 페스티벌의 비중을 늘었다. 도심 곳곳에 판을 벌이는 퍼포먼스 형식의 축제문화로 젊은 세대의 발걸음을 붙잡겠다는 취지에서다.

◇지난 시절 그곳="충장로 '쁨뿌집'"에서 진한 추억탕 한 그릇을 먹고, '부록'에서 '아이스크림'로 입맛을 다신다"

이런한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간 광주의 옛 모습이 재현된다. 옛 화백화점 본관 1층(958㎡)에 마련되는 '추억의 시간여행' 전시관에는 ▲광주 음성 ▲광주 우체국 ▲동방극장 ▲부록 ▲쁨뿌집 ▲서석대 ▲원두막 ▲화신다방 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.

화백화점 별관(132㎡)에는 봉선화 물들이 기와 밀랍으로 손 모양 뜨기 등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.

/오픈기자 kroh@kwangju.co.kr
/사진=위직랑·나명주기자 jrwi@



추억을 맑는 곳, 충장로에 나를 던져라



"금남로에 차 가져 오지 마세요"

충장로 축제 기간 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차를 가져오면 낭패를 보게 된다. 개막일인 9일부터 14일까지 금남로 분수대에서 금남로 공원(금남로 1~3가)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이다.

'2007 충장로 축제 추진위원회'는 7일 "중국 예술단 공연 등 각종 대형 공연이 분수대 앞 특별무대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일대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통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다. 대신 축제 기간 동안 ▲금남 지하 주차장 ▲동구청 주차장 ▲옛 중앙교회 ▲AKT광주 자사동 17개 주차장(1천610면)이 무료 개방된다. 또 ▲황금 주차장 ▲대도 주차장 ▲밀리오레 주차장 ▲오페라 하우스 등 14개 주차장(1천227면)을 이용하면 30~50%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.

축제 추진위 관계자는 "도심권을 통과하는 차량은 천변로와 전남여고 앞 등으로 우회하기를 바란다"고 밝혔다.

"평생 못잊을 감동·재미 주고 싶어"

유태명 동구청장

"제88회 광주 전국체전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충장로 축제를 흥겹게 준비했습니다"

광주시 동구 금남로 옆 전남도청 앞에서 오는 9일 열리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6일간의 장정에 들어갈 '2007년 광주 충장로 축제'. 동구가 가장 번영을 누렸던 1970년~1980년대를 테마로 한 충장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유태명(63) 동구청장은 "시민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전하고 싶다"고 말했다.

그는 지난 1년간 충장로 축제 추진위원회와 끊임없는 토론과 회의를 거쳐 64개 프로그램을 함께 선정했다. 올해부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길거리 페스티벌이 풍성해졌다. 중년이 된 '7080 세대'와 '신세대'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열기 위함이다.

유 청장은 "젊은이들이 충장로에 나와 부모 세대의 지난 추억을 함께 나누고,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한바탕 놀 수 있었으면 한다"고 바랐다. /오픈기자 kroh@kwangju.co.kr

제1회 충장로 축제 일정	제2회 충장로 축제 일정	제3회 충장로 축제 일정
9월 9일(금) 17:00~22:00	9월 10일(토) 17:00~22:00	9월 11일(일) 17:00~22:00
9월 12일(월) 17:00~22:00	9월 13일(화) 17:00~22:00	9월 14일(수) 17:00~22:00